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이 영미(한신대)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의 탄식과구원신학 10

본 연구에서는 애가가 전형적인 탄원시와 같이 탄식에서 신뢰 혹은 찬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현실고발과 탄식으로 끝나고 있음을 주목, 탄식의 신학적 의미를 구원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애가와 이사야 40-66장의 문학적 유비는 애가의 탄식은 이스라엘의 패배나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하는 예언적 영성의 표출임을 보여준다.

Lee, Yeong-Mee Lament as Prophetic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Lament and Salvation in the Book of Lamentations 10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의 탄식과 구원신학*

이 영미 | 한신대

1. 시작하는 말

구약성서에는 탄원시가 많이 등장하며,¹⁾ 시편에서도 가장 많은 시편 장르이기도 하다. 탄원시 연구에서 학자들은 탄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전하는 탄식과 찬양의 변증법을 강조한다. 탄식시 대신 탄원시란 명칭을 선호하는 경향은 기독교가 탄식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반영한다. 이는 탄식이 흔히 불신앙의 표식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는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나 구원의 찬양이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고발, 탄식, 저주로 끝나는 탄원시편들이 있다. 탄식의 소리를 높였으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하나님의 부재), 그 자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저주가 대신한다. 인간의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 신앙인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글은

* 이 논문은 제 82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1) 할러데이는 탄원시가 구약문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W. Holladay,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 Years. Prayerbook of a Cloud of Witness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93쪽.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찬양과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고, 감사와 찬양의 요소도 없는 그야말로 탄식과 절망, 저주로 끝맺는 애가에 나타난 탄식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탄식시로서의 애가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절규하는 5개의 알파벳(acrostic) 시로,²⁾ 주제의 발전은 뚜렷한 일관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³⁾ 이에 최근에는 시의 주제의 일관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⁴⁾ 주제와 양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띠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애가의 특징으로 보여 진다. 여기서는 애가의 문학적 구조, 양식비평적 특징, 그리고 시 속에 나타나는 주제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분석함으로써 시의 일관성의 결여 혹은 전형적인 패턴의 파괴가 오히려 애가의 신학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1) 애가의 문학적 구조

애가의 다섯 개 시편 중 5장을 제외한 네 개는 히브리어 자음 숫자에 따라 22연(stanza)으로 이루어진 알파벳 시이다. 1, 2장은 각각 세 행씩(애 1: 7과 2: 19는 네 행씩으로 예외), 총 66행, 4장은 각각 두 행씩 총 44행으로 구성된다. 세 장 모두 “슬프다”로 시작된다. 반면, 제 3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 자가 세 절씩 반복되어 그 절수의 총계는 66절(22X3)이다. 알파벳에 따른 두운법은 특별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암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제 5장은 ‘알파벳’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알파벳 수와 상응하는 22절로 되어 있다. 결국 애가

2) 구약의 알파벳시(부분적인 알파벳 시 포함)는 나 1: 2-8; 시 9-10, 25, 34, 37, 111, 112, 119, 145; 잠 31: 10-31 등이 있다.

3)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79), 594쪽; C. Westermann,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Charles Muenchow*,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66쪽.

4) P. Joyce, “Lamentations and the Grief Process: A Psychological Reading,” *Biblical Interpretation* 1 (1993), 304-320쪽; M. S. Moore, “Human Suffering in Lamentations,” *RB* (1983), 534-555쪽. B. Johnson, “Form and Message in Lamentations,” *ZAW* 97(1985), 58-73쪽. D. J. Reimer, “Good Grief?: A Psychological Reading of Lamentations,” *ZAW* 114 (2002), 542-559쪽. 조 헌정 목사는 애가를 엘리자베스 큐블러가 주창한 ‘죽음의 심리학’ 단계에 맞춰 분석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시를 병행하면서 상황적 설교를 제시하고 있다. 조 헌정, 「양심을 습격한 사람들」 (서울: 한울, 2009), 247-270쪽.

다섯 장의 시는 다양성을 띠면서도 공통되게 알파벳 수 22개와 상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애가 1장은 세 단원(애 1: 1-11, 12-20, 21-22)으로 구성된다. 화자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 구분의 근거이다. 첫 번째 단원(애 1: 1-11)은 의인화된 도시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시인(the narrator)의 목소리로 시작된다. 시온은 3인칭으로 언급된다. 두 번째 단원(애 1: 12-20)에서 의인화된 예루살렘이 아웨께 자신의 비통함을 돌아봐 달라고 간청한다. 마지막에서 시온은 주의 반포하신 날에 이르러 자신이 겪은 일을 원수도 동일하게 겪게 해달라고 탄원한다(애 1: 21-22). 반면 헤터(Homer Heater)는 1장을 두 단원으로 나누고 이 구분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르면 첫 부분(애 1: 1-11)은 알레프-카프, 두 번째 부분은 라메드-타브에 해당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부는 도시의 절망적 현실을 표현하고, 후반부(애 1: 12-22)는 이 절망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확신과 적에 대한 보복에 대한 호소를 보여준다고 말한다.⁵⁾ 애가 2장 역시 세 단원(애 2: 1-11, 12-20, 21-22)으로 구분된다. 1장과 마찬가지로 2장은 시인의 목소리로 시작된다(애 2: 1-8). 여성시온은 이에 하나님의 책임에 관한 주제로 화답한다(애 2: 12-20). 2장의 마지막(애 2: 20ff.)은 자신의 처지를 감찰해달라는 탄원으로 끝난다. 애가 3장은 등장하는 화자의 목소리에 따라 세 단원(애 3: 1-39, 40-47, 48-66)으로 구분된다. 1-2장에서 일인칭으로 말하는 주체가 여성 시온인 반면, 3장에서는 시인(narrator)외의 또 다른 개인(그이)이다.⁶⁾ 주제별로는 절망의 시(애 3: 1-18), 희망의 시(애 3:

5) H. Heater Jr., "Structure and Meaning in Lamentations," *Bibliotheca Sacra* 149 no 595 (July-Sept 1992), 304-315쪽. 헤터는 이 논문에서 애 1장 뿐 아니라 이어지는 애 2-4장의 알파벳 시들 역시 히브리 알파벳에 따라 두 부분-첫번째 부분은 알레프에서 카프까지(현실고발), 두 번째 부분은 라메드에서 타브까지(호소)-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한다. 그의 관찰은 애 5장의 끝절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지만 전체적인 구조 분석이 그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 취약점이 있다. 가령 헤터는 자신의 알파벳 구분에 따라 애 2장을 알레프에서 카프까지의 첫 번째 부분(애 2: 1-11)과 라메드에서 타브까지의 두 번째 부분(애 2: 12-22)으로 나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는지 생생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애 2장의 경우 헤터의 구분은 그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알레프-카프, 라메드-타브의 이분법적 구조를 따른다면, 일인칭으로 시작되는 시인의 말이 애 2장 12절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시인은 애 2장 11절부터 그 말을 시작한다. 또한 애 2장 12-13절(카프, 라메드)은 여전히 굶주린 아이들에 대한 애절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6) 3장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애 3: 1-39에서는 개인의 '나'가 '그이'에게 대

19-39), 회개의 시(애 3: 40-47), 탄원의 시(애 3: 48-66)로 구별된다.⁷⁾ 애가 3장도 원수에 대한 보복의 탄원으로 끝맺는다(애 3: 59-66). 애가 4장은 역시 세 개로 구분되는데(애 4: 1-11, 12-20, 21-22), 첫 부분은 시온의 백성의 폐허된 상황을, 두 번째는 희망을, 그리고 마지막은 에돔을 향한 보복의 탄원(애 4: 21-22)으로 끝난다. 마지막 5장도 앞의 네 장과 마찬가지로 세 단원 애 5장 1-18, 19-20, 21-22절로 구성된다. 이로써 애가 전체의 시의 구조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애가는 형태의 다양성은 있을지라도 알파벳시의 특징을 띠고 있다. 둘째 애가는 다섯 개의 시 모두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앞서 지적한 대로 애 5장은 유일하게 알파벳시 구조를 따르지 않는데, 헤터는 애 1-4장이 알레프에서 카프, 라메드에서 타브로 이분되는(the split alphabet) 현실고발-호소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결론을 근거로,⁸⁾ 애 5장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애가 5장 19-20절은 애 1-4장의 이분구조가 압축적으로 반영되어 소알파벳시(mini acrostic)를 이루면서,⁹⁾ 애가 전체의 내용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정의 선포와 시온의 고통 호소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본다. 애 5장 19절은 알레프로 시작되고(אָתָּא 아타/너), 카프로 끝난다(אָתָּא 키세/왕관). 애 5장 19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신학적 명제들은 병자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시인은 애 5장 20절에서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라메드(רָמָה 라마/왜)로 시작해서 타브(תְּבַנְנִי תֵבַנְנִי 타아쯔베누/당신이 우리를 버렸다)로 끝난다. 시편기자는 애 5장 19-20절의 이분구조를 강조하기 위해 애 5장

해서 말하고 있다. 애 3: 40-47에서는 단수 '나'가 복수 '우리'로 변하고 있다. 애 3: 48-66절에서는 다시 개인의 '나'가 야웨께 말하고 있다. H. T. 퀴스트, 「에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225쪽. 헤터는 애 3장의 화자는 애가의 저자라고 본다. 이 시인은 백성과 함께 고통을 겪은 자이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애 3: 14), 백성들은 그를 웅덩이에 넣어 죽이려 하였다(애 3: 53-57).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였다(애 3: 61-62). Heater, "Structure and Meaning in Lamentations," 308쪽.

7) 퀴스트, 「에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박 대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225-226쪽.

8) 1, 3, 4장은 카프와 라메드를 경계로 이분되어 두 개의 단원을 가지고, 2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구조를 찾아볼 여지가 있다. Heater, "Structure and Meaning in Lamentations," 310쪽.

9) 애 5: 19-20의 압축된 알파벳시 구조는 다음 단락에서 논의할 것이다.

1-18절을 알파벳시의 두운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시편 기자는 5장 전체를 알파벳 숫자에 상응하는 22개의 절로 구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¹⁰⁾ 5장 19-20절이 소알파벳시라는 헤터의 분석은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의 네 장이 자신이 말하는 이분구조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애가 전체를 압축하는 애 5장 19-20절의 소알파벳시 이후에 다시 터져나오는 애 5장 21-22절의 탄식이다. 애가를 마무리하는 애 5장 19-22절은 내용상 많은 논쟁을 야기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식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 보면서 후에 논의할 것이다.

2) 탄원시의 전형적 틀을 깨고 있는 애가

애가를 양식비평적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1, 2, 4장은 만가(*dirge*: *qinah*)와 공동체 탄원의 요소들을 혼합해서 가지고 있고,¹¹⁾ 애 3장은 개인 탄원시¹²⁾와 공동체 탄원시를 모두 포함하고, 마지막 애 5장은 공동체 탄원시의 예를 보여준다.¹³⁾ 탄원시 양식은 전통적으로 1) 도입구, 2) 하나님을 향한 탄식 내지는 고발, 일인칭 탄식 그리고 적에 대한 탄식, 3) 신뢰고백, 4) 간구, 5) 찬양서원이 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된다.¹⁴⁾ 학자들은 탄식시편에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전이를 구약의 탄원시의 특징으로 손꼽는다. 예루살렘의 함락을 언급하는 시편들(시 74: 77; 79: 89편) 중에서 탄식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위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상과 찬양으로 전이되는 대표적인 예는 시 74편 12절에서 볼 수 있다.

탄식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긴 공백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시인

10) Heater, "Structure and Meaning in Lamentations," 311쪽.

11) Westermann,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Edinburgh: T & T Clark, 1994), 1-23쪽; T. Linafelt, *Surviving Lamentations: Catastrophe, Lament, and Protest in the After life of a Biblical Book*,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2000), ch. 2; N. C. Lee, *The Singers of Lamentations: Cities Under Siege, From Ur to Jerusalem to Sarajevo*, (Leiden: Brill, 2002), 1-46쪽.

12) 제 3장은 1, 2, 4장이 에카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일인칭 인칭대명사 **אני**(아니/나)로 개인 탄원시를 시작한다.

13) J. Middlemas, "Did Second Isaiah Write Lamentations III?" *VT* LVI, 4(2006), 505쪽.

14) C. Westermann, *Lamentations*, 48ff.쪽.

은 하나님을 고소하기도 한다(시 22: 2). 시인의 호소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동기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탄원시가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백이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구약성서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점이다. 구약에 탄원시의 전형을 따르지 않고 그 양식을 파괴하는, 즉 반전이 없는 탄원시의 한 예로 시 89편을 들 수 있다. 이 시편은 찬양이나 찬양에 대한 약속, 혹은 신뢰가 아닌 탄식으로 끝맺고 있다.¹⁵⁾

또 다른 예는 시 137편이다. 시 137편은 탄식시의 전형적인 양식을 뒤바꿔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아살해의 무시무시한 결론으로 끝맺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성서본문들 중 하나이다. 시 137편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7. 기억하소서, 주님!

에돔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의 날과 함께
그들은 말한 자들이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라고

8. 딸 바벨론아! 파괴되고 있는 자여,

복이 있다, 너에게 되갚는 자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9. 복이 있다, 너의 아이들을 붙잡아서 바위에 내던지는 자는

이 시편이나 구약의 다른 난해한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독자들은 흔히 어려운 구절이나 절을 생략하거나 이를 은유적으로 읽어서 그 긴장을 쉽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문의 어려움을 상징적 은유로 해석함으로써 쉽게 피해가는 것은 본문의 본래 기능을 너무 신앙화, 미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성서 본문이 문자적으로 불편한 언어와 신학을 담고 있을지라도 본문과의 대화를 통해 그 신학적 의미를 찾기 위해 씨름해 볼 필요가 있다. 137편의 끝맺음의 경우, 저주의 말들이 외관상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힘의 언어로서 저항을 호소하기도 하고, 충성에 대한 맹세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재조정되고 형성될 것을 촉구하기도 하는 저주의 기능을 통해 포로기 저항의

15)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개역개정).

시로 재해석될 가능성도 있다.¹⁶⁾ 이처럼 인간의 고통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긴 공백이 공백으로 남아있을 때, 아니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워 탄원이 저주로까지 이어지는 침묵의 자리에, 교회 혹은 신학의 자리는 어디인가? 여기서 성서해석가의 신학화 작업이 요청된다.

3) 죽음을 대면한 자의 심리변화를 단계적으로 반영한 애가¹⁷⁾

애가에 나타난 주제가 일관된 발전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하여, 최근 몇몇 학자들이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애가의 주제의 일관성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특별히 라이머(D. Reimer)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가 그녀의 책, 「죽음과 죽어감」(On Death and Dying)¹⁸⁾에서 200여명의 죽음을 대면한 환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후 제시한 다섯 단계의 심리변화 단계를 애가에 적용하여 이 시의 주제의 발전단계를 살펴본다. 퀴블러-로스가 제시하는 다섯 단계는 (1)부정과 고립, (2)분노, (3)협상, (4)절망, (5)수용이다. 그녀는 환자의 개인차에 따라 예외는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이러한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고 말한다.

애 1장은 부정과 고립의 단계를 반영한다. 직접적인 부정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배적인 심리상태는 고립 상황에 대한 탄식으로 대표된다. 첫 절에서 폐허가 된 도시는 과부로 의인화되어 소개된다. 뒤따르는 구절에 도시의 고립된 상황은 다양한 표현과 반복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도시의 고립된 상황은 애 1장 2절의 “위로할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난다. 위로할 자가 없다는 표현은 애 1장 9, 17, 21절에 다시 나타난다. 애 2장은 분노의 단계를 반영한다. 2장은 분노가 주된 주제이면서도 고통당하는 자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분노가 전면에 등장한다. 하나님의 분노와 분노에 의한 심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나님의 분노는 애 2장 1절을 시작하고 끝맺는다. 분노는 애가에서 총 9번 언급되는데(애 1: 12; 2: 1, 3, 6, 21, 22; 3: 43, 66) 그중 다섯 번이 애 2장에 나온다. 분노로 인한 참혹한 심

16) A. Boniface-Malle, “Singing a Foreign Song at Home: Analogy from Psalm 137,” 「성경원문 연구」 24(2009), 283-310쪽.

17) 아래는 D. Reimer, “Good Grief?”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18)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과 죽어감」(이 진 옮김), (서울: 이레, 2008).

판행위를 나타내는 단어 **עָלָה**(발라/삼키다, 파괴하다)는 애 2장에서 5번 언급된다(애 2: 2, 5절에서 두 번, 8, 16). 맹렬한 분노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르셨고(애 2: 3), 애 2장 4절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이 된 것과 같이 그분의 분노를 쏟아놓았다고 말한다. 애 3장은 협상의 단계이다. 애 3장에서도 시온의 비극적 상황 묘사는 계속되지만(애 3: 1-18), 애 3장 19-21절은 상황의 전환을 보여준다. 애 3장 22-48절은 하나님의 자비(**רַחֵם** 헤세드)와 긍휼(**רַחֵם** 레헴 애 3: 22, 32)에 호소하면서 희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고백은 출 34장 6절 이하와 연관이 있다. 퀴블러-로스가 말하는 협상이란 좋은 행동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시도를 뜻한다. 애 3장에서 개인(**אֲנִי** 게베르 애 3: 1)과 공동체(우리, 애 3: 40-47)는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게 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애 3: 22-39),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올바른 행동, 회개를 통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애 4장은 절망의 단계이다. 애 4장의 주된 주제는 한때는 소중한, 귀하고 생동력있던 것들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로 변해버린 반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도시의 절망적인 상황은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고(애 4: 10), 도시의 지도자들이 죄악을 일삼고 의인의 피를 흘린다(애 4: 13-16). 애 4장이 애가에서 유일하게 기도문이 빠져있는 장이란 점도 이 장이 절망의 단계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퀴블러-로스는 절망의 단계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한다. 절망은 상실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 그러나 절박한 상실감에 뒤따르는 절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 4장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에돔의 멸망으로 표현된다. 퀴블러-로스에 따르면 마지막 5단계는 수용이다. 그러나 애 5장은 수용과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퀴블러-로스의 5단계 틀을 깨고 있다. 애 5장은 하나님께 대한 여성 시온의 직접적인 호소로 시작되고 끝맺는다. 시온의 호소는 희망에 대한 감사와 수용이 아닌 구원의 촉구와 하나님에 대한 고발로 끝난다.

결국 애가는 퀴블러-로스의 다섯 가지 단계 중 처음 네 단계를 반영하지만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가가 퀴블러-로스의 5단계 틀을 깨고 수용이나 감사 대신 구원의 촉구와 고발로 끝나는 점

은 앞선 애가의 문학구조에서 각 장의 시가 탄원으로 끝나고, 전체적인 시의 마지막 구절인 애 5장 19-22절이 고발과 구원의 촉구로 끝나는 점, 그리고 애가가 탄원시의 전형적 요소인 탄원->찬양으로의 전이를 보여주지 않고 갑작스런 탄원으로 끝나는 특징과 상응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애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맺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탄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결말 없는 결론(open ending)을 내놓고 있음을 보였다.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 우리는 서있다.

3. 탄식의 신학적 의미: 애가 5장 21-22절

1) 애가 5장 21-22절의 해석상의 문제

애가의 문학적 구조에서 드러난 특징 중 하나는 각 장이 탄식으로 끝나는 점이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런 도식이 나타난다. 특별히 전체 시의 결어라고 할 수 있는 애 5장 21-22절의 탄원은 도전적이며 애가의 신학적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애 5장 21-22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 5장 22절의 번역상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애 5장 22절 번역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אֶם-כִּי**(키-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법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해석은 도발적으로 끝나는 애가 결말의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와도 맞물려있다. 애 5장 22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먼저, 마소라 본문은 애 5장 22절은 **אֶם-כִּי**(키-임)으로 시작하지만, 희랍역과 페쉬타와 몇몇 히브리 사본이 애 5장 22절을 **כִּי**(키)로 시작되는 사본 전통을 따라 해석한다. 한 예로 NEB가 이 절을 “**왜냐하면**, 만일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로 번역한다. 이 해석은 애 5장 22절의 두 행이 동의적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¹⁹⁾ 다음으로 이 절을 의문으로 해석하는 예이다.²⁰⁾ 그러나 **כִּי**(키) 혹은 **אֶם-כִּי**(키-임)이 “또는(or)”나 의

19) 첫 행의 절대부정사 구성이 둘째 행의 **אֶם-כִּי**(아드-머오드)와 병행하고 있다.

20) 한글 성서 번역(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새개정)은 모두 **אֶם-כִּי**(키-임)을 느슨하게 번역하거나 번역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역개정은 본문에서는 **אֶם-כִּי**(키-임)을 번역하지 않고 각주에서

문문으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셋째로 ׀ֿֿ(키-임)을 창 32장 27절의 예를 따라, “unless”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NIV가 이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번역은 알브렉슨에 의해 비판되었는데 그는 ׀ֿֿ(키-임)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거나 암시한 절 뒤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한다. 고디스(R. Gordis)는 이러한 문법적인 어려움과 별개로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학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²¹⁾ 넷째로 힐러스는 이를 “그러나(but)”으로 번역한다. 라틴역(vulgate)의 지지를 받는 번역이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 절은 현실을 그대로 재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²²⁾ 다섯째로 고디스는 이를 “비록 ...할지라도(even if, though)”로 번역한다. 그 실례로 렘 51장 14절; 사 10장 22절; 암 5장 22절과 애 3장 32절을 제시한다.²³⁾

명쾌한 해답은 없어 보이지만 고디스의 번역이 문법상 무리도 없고 신학적으로도 무난한 선택으로 보인다. 고디스의 지적과 함께 22절의 동사가 완료형인 점을 살려서 21-2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1. 아웨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 비록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었고(׀ֿֿ)
 우리에게 진노(׀ֿֿ)가 컸을지라도

이처럼 애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호소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고, 진노가 컸음을 상기시키면서 시를 마무리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버린 현실을 미화하거나 숨기려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이 절을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새번역은 본문과 각주의 내용을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영어 성서번역의 경우 RSV에서 같은 번역이 발견된다.

21) R. Gordis,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5:22),” *JBL* 93(1974), 290쪽.

22) Hillers, *Lamentations*, 100-101쪽.

23) Gordis,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s(5: 22),” 293쪽.

다. 사 54장 6절은 하나님이 여성시온을 구원해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야웨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15) 애 5: 20)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82)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고 말한다. 이어서 사 54장 7-8절에서 하나님은 여성시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5)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73P)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야웨의 말이니라”고 적는다. 여기서의 두 본문은 동일한 히브리어들을 공유하고 있다.

어떠한 번역을 선호하든지 애가의 마지막 구절은 확신에 찬 끝맺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유대 전통에서는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고 야웨께 호소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어조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 5장 21절과 22절을 뒤바꾸어 읽는다.²⁴⁾ 그러나 애 5장 21, 22절의 순서는 오히려 계속되는 거부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보다, “하나님에게 솔직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애가 전체의 무드(비참한 현실고백과 탄원)와 일치하기도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서 그 순서가 고백-탄원이 아니라 탄원-현실고백의 순서로 바꾸어 그 참담한 심정을 더 강조하고 있다.²⁵⁾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은총을 베풀지 않는 것인가? 어찌하여 이같이 오래 버려두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지지 않는다. 애 5장 21-22절은 그러한 하나님이 침묵에 대한 시인의 반복된 탄원과 현실 묘사를 앞의 하나님의 주권선포와 현실고발의 반복(AB-A'B')이 탄원의 강도를 높여준다.

2) 구원의 촉발제로서의 애 5장 19-22절의 기능

하나님의 침묵 앞에 시인의 절규로 끝나는 애가의 결론 없는 결론(open ending)은 문학적 유비와 주제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구약의 다른

24) 로버트 데이빗슨, 「예레미야(하), 예레미야 애가」(장 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259쪽.

25) I. Provan, *Lamentatio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134쪽.

본문에서 그 구원의 응답을 얻게 된다. 특별히 애가의 끝말은 포로기 이사야 예언 속에 많은 부분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가와 제 2이사야의 문학적 유비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감지되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위로하라(נַחֵם), 위로하라 나의 백성”(사 40: 1)으로 시작되는데, 애가에서 시온은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다섯 번이나 한탄한다. 그러나 사 51장 12절은 아웨가 시온의 “위로자”라고 선언한다. 갓월드는 애가와 이사야 40-66장 사이의 문자적 유비 28개를 제시하기도 한다.²⁶⁾ 특별히 애 3장의 국가적 고통과 슬픔의 의인화는 고난의 종 개념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두 책 사이의 유비는 문자적 범위를 넘어선다.

애가와 사 40-66장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사 40-66장의 저자가 애가에 영향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학적 주제들을 도입해서 예언에 활용한 것으로 보지만,²⁷⁾ 학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갓월드는 제 2이사야와 제 3이사야가 애가를 알았다고 보면서 이는 538년 이전에 애가가 하나의 통일된 시가서로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애가는 따라서 바빌론과 팔레스타인에서 회자되었을 것이다.²⁸⁾ 뉴섬(C. Newsom) 역시 제 2이사야가 애가에 대한 호응으로 애가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을 통해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선포했다고 본다.²⁹⁾ 솜머(B. Sommer)는 제 2이사야가 애가의 주제들을 반복하는 기법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달리 미들마스(J. Middlemas)는 애 3장을 제 2이사야가 썼다고 주장하면서 애 3장의 נָחַם(게벨/남성, 용사)와 애 3장 23-39절의 부언적 단위는 애가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태도와 달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포로민들의 신실한, 희망을 담은 반응을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³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가의 다른 부분이 탄식과 고통이 주를 이룬다면 애 3장 1-39절은 재난에 대한 신실한 대응과 아웨

26) 갓월드가 레러의 분석을 근간으로 애가와 이사야 40-66장 사이의 병행구를 정리한 것이다. Loehr, “Der Sprachgebrauch des Buches der Klagelieder,” 41-49쪽; Gottwald, *Lamentations*, 44-45쪽에 나온 목록을 참조하라.

27) 갓월드는 이를 제 2이사야가 애가서로부터 많은 문학기교들, 문구, 그리고 전체 시의 구조와 형식을 활용한(사 47) 결과라고 해석한다. Gottwald, *Lamentations*, 116쪽.

28) Gottwald, *Lamentations*, 44-45쪽.

29) C. A. Newsom, “Response to Norman K. Gottwald, ‘Social Class and Ideology in Isaiah 40-55,’” *Semeia* 59(1992), 75-77쪽.

30) Middlemas, “Did Second Isaiah Write Lamentations III?” 505-525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용기를 부추겨 준다.³¹⁾ 티마이어(Lena-Sofia Tiemeyer)는 애가와 이사야 49-55장 사이의 유비를 통해 학자들이 애가가 이사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점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두 본문 모두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한 유다 배경의 저작으로 주장한다.³²⁾

문학적, 문법적 유비는 물론이고 두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인화된 인물, 화자로 등장하는 시온여성(애 1: 12-22; 2: 20-22)과 애 3장의 **אֲנִי**은 애가와 이사야의 본문간 친밀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사야에서 여성 시온은 직접화법으로 한 번 얘기하는 데, 그 내용이 바로 애가의 마지막 구절과 동사를 공유하고 있다. 린다펠트(T. Lindafelt)는 이사야 40-55장은 애가의 한 어머니의 절규가 이사야에서 그녀의 가족의 회복이 포로민의 구원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것 속에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³⁾ 오카나(K. O'Connor)는 애가의 여성시온의 절규에 대해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제 2이사야에서 대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³⁴⁾ 윌리(P. Willey)는 애가와 제 2이사야의 고난의 종의 노래 중 세, 네 번째 노래와 애 3장의 **אֲנִי** 사이의 유사성을 본문간 비평을 통해 살핀다. 세 번째 종의 노래와 애 3장의 개인은 다른 구절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언어들로 표현된 분화되지 않은 고층의 독백을 공통되게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종의 노래 속의 고난의 종은 **אֲנִי**에 의해 예견된 행동들을 연출해 낸다. 따라서 그녀는 이사야가 애 1-2장으로부터 의인화된 여성시온의 은유를 재사용하며, 또한 이사야가 “신실함(faithfulness)을 논함에 있어서 애가 3장이 매개가 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³⁵⁾

결론적으로 등장인물의 유사성과 병행점들, 그리고 특별히 애 5장 19-22절의 공동체(“우리”)의 절규로 끝나지만 그 침묵은 곧 깨어져 포로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

31) Middlemas, “Did Second Isaiah Write Lamentations III?” 524쪽.

32) Lena-Sofia Tiemeyer, “Geography and Textual Allusions: Interpreting Isaiah xl-iv and Lamentations as Judahite Texts,” *Vetus Testamentum* 57(2007), 367-385쪽.

33) T. Lindafelt, *Surviving Lamentations*, 62-79쪽.

34) K. O'Connor, “Speak Tenderly to Jerusalem: Second Isaiah’s Reception and Use of Daughter Zion,”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0(1999), 287쪽.

35) P. T. Willey, *Remember the Former Things: The Recollection of Previous Texts in Second Isaiah*, (Atlanta: SBL, 1997), 220, 226-227쪽.

생의 선포(사 66장)에 이른다.³⁶⁾

4. 예언적 영성으로서의 탄식: 애가에 나타난 탄식과 구원신학

1) 저항으로서의 탄식

성전의 멸망과 백성들의 참혹한 상황은 전통적인 신앙을 전면으로 도전하며 개인적 신앙에 대한 시험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애가는 멸망/죽음이라는 좌절 속에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인간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정의로운 분임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탄식시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통은 감당하기에 너무 큰 나머지, 동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나라들 위에도 심판을 내리시라는 탄원으로 나아간다. 절망이 심할수록 이러한 촉구는 저주의 형태까지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가는 “인간의 무력과 나약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과 동요(vacillation)를 창출한다.”³⁷⁾

윌리엄슨은 애가의 탄식을 제임스 스코트의 정치관계 분석에 대조하면서 애 5장은 하부정치(infrapolitics)의 한 예라고 해석한다. 하부정치란 사회적 관계와 폭력적 사회조건이 역학관계에 직접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자아의 존엄성과 고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는 의미와 표현의 세계이다. 억압받는 집단은 권력구조에 순응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상징을 사용한다. 많은 경우 하부정치 세계는 조직화된 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³⁸⁾ 이런 견지에서 윌리엄슨은 애 5장을 공동의 은밀한 진술서(public, hidden transcript)라고 부른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애 5장의 공동체, “우리”의 애가는 폭력과 불의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으로 다루어지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저항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윌리엄슨은 그의 분석에서 이러한 상징적 저항의 표식이 예배라는 삶의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36) 이 영미, 「이사야의 구원신학」의 사 66장의 수사비평적 분석을 참조하라.

37) Gottwald, *Lamentations*, 116쪽.

38) 윌리엄 스코트의 이론에 대한 소개는 윌리엄슨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J. C. Scott,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R. Williamson Jr., “Lament and the Arts of Resistance: Public and Hidden Transcripts in Lamentations 5,” N. C. Lee/C. Mandolfo(eds.), *Lamentations in Ancient and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s*, (Leiden: Brill, 2008), 67-80쪽.

간과하고 있다. 저항과 현실 고백이 공적 예배(공동체 탄원시)에서 선포 된다는 삶의 자리를 고려한다면 애 5장은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의례화하는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마크 보다(M. J. Boda)가 애가가 예배에서 활용된 공동체 탄원시임을 강조하는 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³⁹⁾ 의례 속에서의 탄식은 희망(구원)이라는 종교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현실을 고발하고 약자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탄식

얼핏 보면 애가의 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끝나는 듯 하지만 여기서의 탄식은 현실 포기의 부정적이고 소극적 의미보다는 부정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약자와 함께하고 위로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중국에는 심판을 구원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부재한 곳에서 침묵하는 자들의 고통을 듣게 해준다. 탄식은 억압상황에 대한 절규이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고발함으로써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다. 말레는 “탄식은 고통의 언어이다. 이 목소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탄식의 기능은 고통을 완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마르도록 해줄 자 앞에 한 사람의 내적 고통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 이는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자 앞에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수단이다.”⁴⁰⁾고 말한다. 탄식은 정의를 향한 정치적 종교적 부르짖음, 즉 삶의 노래이다. 탄식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불러 상처와 고통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 위로할 자가 없다고 절규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는 것이 탄식하는 자의 탄식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탄식함을 통해 가능해진다. 애가에서 화자가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다. 공동체적 탄식은 특별히 탄식에 권위와 힘을 부여해주어 건설적인 해결의 길을 열기도 한다. 보다는 예배에서의 공동체 탄원시를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평가하기도 한다.⁴¹⁾

39) M. J. Boda, “The Priceless Gain of Penitence: From Communal Lament to Penitential Prayer in the ‘Exilic’ Liturgy of Israel,” N. C. Lee/C. Mandolfo(eds.), *Lamentations in Ancient and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s*. (Leiden: Brill, 2008), 82-101쪽.

40) A. Boniface-Malle, “Singing a Foreign Song at Home: Analogy from Psalm 137,” 『성경원문연구』 24(2009), 304-305쪽.

41) M. J. Boda, “The Priceless Gain of Penitence.”

3) 침묵을 깨고 구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탄식

탄식의 기능은 저항, 현실고발이나 애도에 그치지 않는다. 탄식은 구원의 동기 혹은 촉발제로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구원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 출애굽에서 무명의 어머니들의 애도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출 1장의 유아살해와 노동의 착취는 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의 배경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찾으신 것은 “울부짖음”이 촉발제 역할을 한 것이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촉발시키는 동기가 되었고, 많은 탄원시편에서도 구원은 고통의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증거되고 있다(시 44, 74, 77, 79 참조). 탄원시편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식의 신학적 중요성은 무엇보다 고통의 상황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있다.

5. 글을 맺으면서

애가는 구조적으로 양식에 있어서, 그리고 심리적 유비 분석에서 모두 독자가 원하는 해피엔딩을 쉽게 제시해주지 않고 오히려 탄식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희망하도록 북돋우는 예언자적 영성을 표출한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이며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능력을 다시금 확인함을 고백하지만 죄의 결과와 정도가 자신들이 담당하기에 너무 크고 부당함을 고발하며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책이 바로 애가이다. 구조적으로 애 5장 19-22절은 전체 시를 요약하면서도 도전적인 진술로 끝을 다시금 처음의 절규로 되돌려놓고 있다. 양식에 있어서 애가는 탄원시의 전형적인 틀, 절규에서 탄원으로의 반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심리학’과의 유비를 통한 주제 분석에서도 마지막 5단계인 수용으로 발전하지 않고 여기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의 함께 아파하고, 현실을 들춰 큰소리로 고발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슬퍼하는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애가의 신학적 의미를 보여준다. 오카나(K. O'Connor)는 애가는 “거부를 반박하고, 진실을 말하며, 기억상

실을 뒤엎는” 책이라고 부른다.⁴²⁾

애가는 부정의한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순응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증언(고발)하며,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위로하며, 정의의 회복을 위한 구원을 촉구하는 예언적 영성의 표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과 도전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승화됨으로써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기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다. 자신의 현실의 부당함을 쉽게 받아들이기보다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변론하는 태도 역시 예언전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론을 통해 성서의 신학은 발전해왔다. 애 5장 19-22절의 탄식은 즉흥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일으키기 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재생된다. 두 본문에서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던 여성시온이 자식이 돌아오고 하나님과 해후하며, 새로운 가족(민족)을 이루는 구원의 성취 예언의 중심에 서있음을 볼 수 있다.

애가에 나타난 탄식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한 현대 기독교 신학의 현주소를 성찰하게 된다. 첫째, 한국교회가 더 이상 탄식의 목소리를 통한 부정의의 고발, 정의를 향한 촉구를 담당하는 대언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게 된다. 6,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한국의 고난의 현실의 고발자로서, 대언자로서 탄식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예언자적 한국교회의 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기독교에서 고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너무 쉽게 구원과 희망으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대면, 고투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서는 윤리강령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한 삶과 문화의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투영해주고 있다. 만돌포(C. R. Mandolfo)는 애가의 대화적 신학(Dialogic Theology)을 주장하면서 성서는 인간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답안지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거울과도 같으며 여기에 반영된 다양한 목소리(입장)를 포용하고, 저항하고, 기뻐하며, 함께 울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들을 존중하며 귀기울여야한다고 주장한다.⁴³⁾ 성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를 인간과

42) K. M. O'Connor, *Lamentations and the Tears of the World*. (Maryknoll: Orbis Books, 2002), 94쪽.

43) C. R. Mandolfo, *Daughter Zion Talks Back to the Prophets: A Dialogic Theology of the Book of Lamentatio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128쪽.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서술한다. 이에 교회와 신학은 인간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폭력, 부정의, 슬픔, 고난 등을 구원과 희망으로 쉽게 덮으려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직면하여 저항하고, 함께 울며, 예언적 소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약자와 억압받는 자와 함께 울음과 고통, 그리고 저항의 목소리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구원의 경험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신학적 성장이 없이 대가적 신앙의 확산은 기복신앙적 교회공동체를 형성할 뿐이다. 기복신앙적 기독교 신앙에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한 자기 성숙 위에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6. 참고문헌

- 로버트 데이빗슨, 「예레미야(하), 예레미야 애가」 (장 귀복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이 영미, 「이사야의 구원신학」 (맑은울림, 2005).
- 조 헌정, 「양심을 습격한 사람들」 (서울: 한울, 2009), 247-70.
- 퀴블러-로스, E. 「죽음과 죽어감」 (이 진 옮김), (서울:이레 2008).
- 퀴스트, H. T.,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박 대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Billman, K. D./D. L. Migliore, *Rachel's Cry: prayer of lament and rebirth of hope*, (Cleveland, Ohio: United Church Press, 1999).
- Boase, E., *The Fulfilment of Doom: The Dialogic Interaction between the Book of Lamentations and Pre-Exilic/Early Prophetic Literatur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37), (London/ New York: Clark, 2006).
- Boda, M. J., "The Priceless Gain of Penitence: From Communal Lament to Penitential Prayer in the 'Exilic' Liturgy of Israel," N. C. Lee/C. Mandolfo(eds.), *Lamentations in Ancient and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s*, (Leiden: Brill, 2008), 82-101쪽.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79).
- Ferris, P. W., *The genre of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6).
- Garrete, D./P. R. House, *Song of Songs/Lamentations*, (Nashville: Thomas

- Nelson Publishers, 2004).
- Gordis, R., "The Conclusion of the Book of Lamentation(5:22)," *JBL* 93(1974), 289-293쪽.
- Gottwald, N. K., *Studies in the Book of Lamentations*, (London: SCM Press, 1954).
- _____, "Lamentations," *Interpretation* 9 (1955), 320-338쪽.
- Heater, H. Jr., "Structure and Meaning in Lamentations," *Bibliotheca Sacra* 149 no 595 (July-Sept 1992), 304-315쪽.
- Hillers, D. R., "Lamentations: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AB), (Garden City: Doubleday & Co., 1972).
- Holladay, W., *The Psalms Through Three Thousand Years: Prayerbook of a Cloud of Witness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Johnson, B., "Form and Message in Lamentations," *ZAW* 97(1985), 58-73쪽.
- Joyce, P., "Lamentations and the Grief Process: A Psychological Reading," *Biblical Interpretation* 1 (1993), 304-320쪽.
- Lanahan, W. F., "The Speaking Voice of the Book of Lamentations," *JBL* 93 (1974), 41-49쪽.
- Lee, N. C., *The Singers of Lamentations: Cities Under Siege, From Ur to Jerusalem to Sarajevo*, (Leiden: Brill, 2002).
- Linafelt, T., *Surviving Lamentations: Catastrophe, Lament, and Protest in the After life of a Biblical Book*,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2000).
- Mandolfo, C. R., *Daughter Zion Talks Back to the Prophets: A Dialogic Theology of the Book of Lamentatio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 Malle, A. B., "Singing a Foreign Song at Home: Analogy from Psalm 137," 「성경원문연구」 24(2009), 283-311쪽.
- Middlemas, J., "Did Second Isaiah Write Lamentations III?" *Vetus Testament LVI*, 4(2006), 505-525쪽.
- Moore, M. S., "Human Suffering in Lamentations," *RB* (1983), 534-555쪽.
- Newsom, C. A., "Response to Norman K. Gottwald, 'Social Class and Ideology in Isaiah 40-55,'" *Semeia* 59(1992), 75-77쪽.
- O'Connor, K. M., *Lamentations and the Tears of the World*, (Maryknoll: Orbis Books, 2002).
- O'Connor, K. M., "Speak Tenderly to Jerusalem: Second Isaiah's Reception and Use of Daughter Zion,"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20(1999), 281-294쪽.

- Provan, I., *Lamentation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1).
- Reimer, D. J., "Good Grief?: A Psychological Reading of Lamentations," *ZAW* 114(2002), 542-59쪽.
- Westermann, C., *Lamentations, Issues and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Charles Muenchow, (Minneapolis: Fortress, 1994).
- Wiley, P. T., *Remember the Former Things: The Recollection of Previous Texts in Second Isaiah*, (Atlanta: SBL, 1997).
- Williamson, R. Jr., "Lament and the Arts of Resistance: Public and Hidden Transcripts in Lamentations 5," N. C. Lee/C. Mandolfo(eds.), *Lamentations in Ancient and Contemporary Cultural Contexts*, (Leiden: Brill, 2008), 67-80쪽.

검색어

구원신학

애가

애가 5: 19-22

탄식

탄원시

투고일: 2009년 10월 15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Lament as Prophetic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Lament and Salvation in the Book of Lamentations

Young-Mee Lee,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hin University

Lamentations ends with lament unlike other typical lament psalms that include transformation from lament to trust or prais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nding of lamentations and seeks its theological meaning in relation to salvation. It examines the text from three approaches.

First, literary analysis reveals that each chapter of Lamentations ends with lament or outcry to God, acknowledging the miserable situation. Especially Lamentation as a whole psalm is finished with an open ending in 5: 21-22, in which the psalmist accuses God for abandoning Israel.

Second, from a form critical perspective, Lamentations do not follow typical form of Lament Psalms.

Third,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Lamentations do not reflect the stages of the death or dyingdenial and isolation, anger, negotiation, desperation, acceptance, suggested by Elizabeth Kubler-Ross. In Lamentation, the last stage, which is the stage of acceptance, is missing. Instead, it ends with accusation of God. These three approach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ament' in the book of Lamentation. The last two verses of chapter 5 stands at zenith of lamenting in the whole book. Yet, the ending does not signify the distrust of God or rejection of God. The verses are an open ending that requires to be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other biblical texts of Isaiah 40-66 where they describe the divine salvation after abandoning Israel briefly.

The intertextual reading of lamentation and prophetic text presents some theological connotation of lament:

First, lament is an action of resistance against the unjust situation of people.

Second, lament is an accusation of injustice and represents the voice of the oppressed who is in silence.

Finally, lament evokes the action of the divine salvation who listens to the cry/lament of the oppressed and acts upon the cry.

Keywords

Lament

Lament Psalms

Lamentation 5:19-22

Lamentations

Salvation